

梅泉 民俗詩 <上元雜咏> 特性 研究*

김진옥**

<차 례>

1. 緒論
2. <上元雜咏>의 詩史的 意味
3. 憂國心の 投影
4. 朝鮮詩의 完成
5. 結論

<국문초록>

매천 民俗詩의 대표작인 <上元雜咏>은 매천이 52세가 되던 상원에 창작한 칠언고시 10수의 작품이다. 여기에서는 <上元雜咏>에 드러난 우국심과 朝鮮詩 성격의 수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民俗詩라는 장르의 특성상 우국심이 투영되기는 정서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18세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어진 술한 民俗詩들 중 우국심이 반영된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매천은 이러한 民俗詩에 우국심을 투영하여 民俗詩의 질적 승화를 이루었으며, 민속이라는 것 역시 나라의 존속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세시풍속과 민속놀이가 시적 제재가 된 작품에서는 憂國心이 반영된 작품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정서적으로 세시풍속이나 민속놀이에 대한 詩化에서 그 시심이 우국심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민속시의 속성에 우국심을 투영하였다는 것이 매천 민속시 <上元雜咏>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천 民俗詩 <上元雜咏>의 또 다른 특성으로 조선시를 수용함으로써 그 외형을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시의 수용은 <上元雜咏>이 현장의 사실적 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7-361-AM0015)

** 순천대학교 HK 연구교수

사를 통한 미감을 획득함으로써 민속시의 질적 상승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우리 문화사에서 18세기는 격동의 시기였다. 중세의 붕괴가 곳곳에서 나타났으며, 새로운 질서를 찾고자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던 시기였다. 음악에서는 판소리가 등장하였고, 미술에서는 진경산수화가 대세가 되었다. 국문학 역시 사설시조의 확장과 더불어 전통 미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한시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典範에 대한 고민이 일어났으며, 법고에 대한 회의가 일었던 것이다.

매천의 <上元雜咏>은 당대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개성의 발휘, 전범의 파괴, 탈중심적 사유, 6언시의 활용 등 朝鮮詩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특히<上元雜咏>은 朝鮮詩의 중요한 특성인 현장성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조선인이기에 조선인의 人情를 노래하겠다는 詩作態度가 <上元雜咏>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항상 그러한’ 관념 세계가 아닌 ‘지금 여기’라는 분명한 시적 공간이 작품화되었기에, <上元雜咏>은 세밀한 사실적 묘사에서 오는 일치감과 동화감이 독자에게 주는 주요한 미감이다.

핵심어 : 상원잡영, 매천, 민속시, 조선시

1. 緒論

民俗詩는 민속을 읊은 노래이다. 風俗詩, 紀俗詩 등과 혼재되어 특별한 구분이 없이 쓰이고 있는 한시의 하위 장르 명칭이다.¹⁾ 民俗詩는 민속이 시적 제재가 되고, 창작 의도가 민풍 토속을 채집 수록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민간의 풍속과 생활상에 대한 건문의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에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이는 紀俗詩의 경우

1) 民俗詩, 風俗詩, 紀俗詩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民俗詩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가 시적 제재가 된 경우에 한정하고, 풍속은 시적 제재가 세시풍속은 아니지만 전통 민속(설화, 민요 등)과 관련된 범위까지 확장하고, 紀俗詩는 민중의 삶에 현장에서 행해지는 풍속까지 범주를 확대하여 사용하는 등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를 보더라도 민간의 歲時風俗, 각 지역의 民風 土俗, 민중의 생활상과 動態 등의 기록²⁾이 詩 창작 의도이자 주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창작되어진 수백편의 紀俗詩 성격은 특정 지역의 민풍 토속과, 지방 백성들의 생활상이 주를 이루었다. 특별히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丁若鏞 등 몇몇 실학자의 紀俗詩에서 현실 비판적 민중의 생활상을 기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세시풍속과 민속놀이가 시적 제재가 된 작품³⁾에서는 憂國心이 반영된 작품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정서적으로 세시풍속이나 민속놀이에 대한 詩化에서 그 시심이 우국심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민속시의 속성에 우국심을 투영하였다는 것이 매천 민속시 <上元雜咏>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문화사에서 18세기는 격동의 시기였다. 중세의 붕괴가 곳곳에서 나타났으며, 새로운 질서를 찾고자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던 시기였다. 음악에서는 판소리가 등장하였고, 미술에서는 진경산수화가 대세가 되었다. 국문학 역시 사설시조의 확장과 더불어 전통 미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한시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典範에 대한 고민이 일어났으며, 법고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던 것이다.

唐詩와 宋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조선의 문인들이 중국인의 관념 세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반성이 일었다. 연암은 <嬰處稿序>에서 조선과 중국이 산천과 땅의 풍기가 다르고 언어와 노래의 습속이 다르므로 조선 사람은 중국의 법을 본받아서는 안 되며 조선의 노래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朝鮮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⁴⁾ 그러나 연암의 ‘朝鮮風’에는 이정선의 지적⁵⁾처럼 민족 주체에

2) 金明淳, 『동방한문학 33집』, 「기속시의 성격과 조선후기의 양상」, 304쪽.

3) 넓은 의미에서의 紀俗詩는 사회시 성격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民俗詩의 개념은 이처럼 폭 넓은 紀俗詩와는 차별이 있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가 시적 제재가 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紀俗詩 차원에서 우국적 성향을 보이는 작품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4) 朝鮮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정선의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한양대학교

대한 분명한 자각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다산의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라는 언급에서 사용되었던 ‘朝鮮詩’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⁶⁾ 또한 朝鮮詩의 여러 속성 중 가장 중요한 특성인 당대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개성의 발휘, 전범의 파괴, 탈중심적 사유, 6언시의 활용 등 기타 朝鮮詩의 속성을 부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매천의 <上元雜咏>이 朝鮮詩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매천의 <上元雜咏>은 일반적 민속시와 다르게 우국심의 투영과 조선시의 추구를 통하여 민속시의 외형을 확장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上元雜咏>의 詩史的 意味

매천 民俗詩의 대표작인 <上元雜咏>은 매천이 52세가 되던 1906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창작한 칠언고시 10수의 작품이다. 매천은 근체시와 고체시에 모두 능통하였다.⁷⁾ 그러나 실제 작품 창작의 양에 있어서는

출판부, 2002)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 5) 이정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 출판부, 2002, 22쪽.
- 6) 朝鮮詩와 朝鮮風은 그 함의가 같고 朝鮮詩라는 용어보다는 朝鮮風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朝鮮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는 朝鮮風이나 朝鮮詩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그 중요한 속성인 매천 民俗詩에 드러난 당대 현실의 사실적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엄격한 용어의 구별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매천의 여러 성향이 연암보다는 다산에 더 기울어 있고, 朝鮮詩라는 용어가 보다 일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朝鮮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7) 이병기, 『매천시 연구』(보고사, 1995), 207쪽. 매천시는 외형면에서 다양성을 보여 준다. 학자 시인이라서일까. 크게는 고체시법과 근체시법을 즐겼는데, 전자에는 5언절구 ... 하략 ...

매천 연구의 태산 격인 이병기의 지적이 아니라도 매천시의 다양성은 그 작품이 증명하고 있다. 근체시에서 7언 배율이 보이지 않을 뿐 거의 모든 형식의 시를 창작하였다. 한편, 김정환은 매천의 작품 중 7언 배율이 2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어떤 작품을 지칭하

근체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인다.⁸⁾ 근체시에서는 오언보다 칠언이 4배 이상 많으며, 율시가 절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배율시는 오언에서 2수가 보일 뿐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매천시의 절반 정도가 칠언율시이다.⁹⁾ 상대적으로 古詩는 그 작품 수에 있어서는 그리 비중이 크지 않다.¹⁰⁾ 이러한 양적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천이 고시¹¹⁾에 능하였다는 것은 매

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환은 매천시의 유형을 13가지로 구분하였다.(김정환, 「매천 황현의 구안실신고 연구」, 『한문학보』 제12집, 435쪽에서 436쪽.)

- 8) 김영봉은 『매천전집』에 전하는 1,015수의 작품에서 중복된 작품을 제외한 986수의 작품 중 근체시가 855편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김영봉, 「매천 시의 배율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13집, 97쪽.) 또한 김정환은 매천 시의 전체 규모를 2,303수로 보고 이 중 2,053수가 근체시라고 하였다.(김정환, 앞의 논문, 436쪽.)
- 9) 매천시에서 칠언 율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추론해 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논제가 아니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다만 칠언율시에 정통하였던 옥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지적하고자 한다. 매천은 스스로 <讀劍南集>(매천전집, 권삼, 249쪽)이라는 시에서 자신은 송시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옥유시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이병기 역시 매천시에 영향을 끼친 중화시인으로 소동파와 옥유를 들고 있으며(이병기, 위의 책), 기태완도 옥유가 매천의 칠언율시에 끼친 영향을 심도 있게 언급하였다.(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황수정 역시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라는 논문에서 소동파와 옥유를 별도의 장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6.) 모든 매천 연구자가 매천시에 끼친 옥유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매천은 특히 옥유의 칠언율시를 좋아하였다. 매천이 옥유시를 차운한 71수의 작품 중에서 단 1수만이 오언율시이고, 나머지 70수의 작품이 칠언율시이다.
- 10) 전체 작품에서 고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언고시가 6%, 칠언고시가 3% 정도로 10%를 넘지 못한다. 악부체라든지 사언, 육언, 잡언 등의 형식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이다.
- 11) 고시는 고체시라고도 한다. 고시는 크게 악부시와 고시로 나뉜다. 이 경우 용어의 혼란이 오는 것이 사실이나 관례적으로 묵인되어 왔다. 그래서 고시라고 할 때는 근체시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압운과 평측, 점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문체인 문체적 특성의 고시라는 용어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악부시는 歌, 詞, 음, 영, 요 등으로 분류되며, 고시는 삼언, 사언, 오언, 육언 등 다양하나 오언고시와 칠언고시가 대표적이다.
고시를 대표하는 오언고시와 칠언고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 글자가 23으로 나뉘는 오언고시와 달리 223으로 나뉘는 칠언 고시는 이 때문에 리듬이 장중하고 호흡이 길며 수사적인 느낌을 준다. 오언고시는 악부시와 관계가 깊으며 악부시의 한 부류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데에 반하여 칠언고시는 초사나 초가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오언고시는 수많은 문학 내부적 요인과 시대적 요인들이 한데 섞여져 융합되고

천의 대표작에 고시가 많은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매천의 대표작 중 하나인 <上元雜咏> 역시 전부 칠언고시로 이루어져 있다.

매천집에 수록된 <上元雜咏> 10수는 구례의 옛 풍속인 <祭鳥>부터 시작하여 <飼牛>, <治蠶>, <賣薯>, <植風竿>, <苦橋>, <燒田>, <候月>, <緯曳>, <罷灘>까지를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매천은 <上元雜咏> 서언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세시의 감회를 달랠 길이 없어 향촌의 옛 풍속을 엮어 장가 십 편을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上元雜咏>의 창작 의도인 서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날씨가 매우 추웠다. 이불로 몸을 감싸고 날을 보내다가 세시의 감회를 떨칠 길이 없어서 마침내 향촌의 옛 풍속을 엮어 장가 십 편을 얻었다. 대개 범석호의 전원 악부의 유풍이라 하겠다. ‘까마귀 제사’와 같은 것은 경주의 풍속을 숭상하여 따른 것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¹²⁾

매천 역시 <上元雜咏>의 창작 의도는 범석호의 전원악부의 遺風을 따라 향촌의 옛 풍속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上元雜咏> 10수는 구례 지역 上元 풍속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자, 창작 의도였던 것이다.

민속시는 민속이 시적 재제가 되고, 창작 의도가 민풍 토속을 채집 수록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민간의 풍속과 생활상에 대한 견문의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에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속시의

단련된 마치 시대의 용광로와 같은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반면에 칠언고시는 비교적 단선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오언고시의 성공에 힘입어 뒤늦게 그 영향을 받아 발전한 양식이었다.

이런 한계로 칠언고시는 지식인적 관점에 입각한 세계에 대한 진지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자연현상이나 탐미적인 주제를 주로 현란한 수사기교를 통하여 추구하는 특별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진 경향이 있다.

12) 이병기의, 『역주매천황현시집 하』, 234쪽. 上元前後, 天甚寒. 擁衾度日, 無以遣歲時之懷, 遂綴鄉村故俗, 得長歌十篇. 蓋亦范石湖, 田園樂府之遺云. 若祭鳥則尙沿東京俗, 其餘并不知昉自何時.

범주에 속하는 작품군에서 우국심을 추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민속시보다 확장된 범주인 기속시에서도 우국심이 반영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국심이 반영된 민속시 <上元雜咏>은 한국 한시사에서 아주 특별한 작품이다.

3. 憂國心の 投影

<上元雜咏> 10수의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몇의 작품에서 우국심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현상¹³⁾을 작품 속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上元雜咏> 첫 번째 작품인 <祭鳥>를 살펴보고자 한다.

鳥啼啞啞復角角	까마귀가 아아 하다 다시 깹깹거리고
驅之復來墻頭啄	몰아내면 다시 와서 담 위에서 쪼아대네
寄語兒童莫浪驅	아이들이 함부로 몰지마라
此鳥不是凡鴉鵲	이 새는 보통 까막까치가 아니란다
新羅宮中啣書來	신라 궁중에 글을 물고 와
能爲君王捍大災	능히 임금을 위해 큰 재앙을 막았지
糲飯成俗過千年	찰밥 해 먹이는 풍속이 천년이 넘었으니
家家施食如僧齋	집집마다 스님에게 시주하듯 음식을 베풀구나
舉世龔贖無眞聽	은 세상 눈이 어둡고 진실로 귀 밝은 이 없으니
聞鳥輒噴鳥鳴凶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그때마다 성내며 까마귀 울음은 흥하다한다
鳥如解語應叫寃	까마귀가 만약에 말을 알아듣는다면 응당 큰 소리로 원

13) 민속시는 민속이 시적 제재가 되고, 창작 의도가 민풍 토속을 채집 수록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민간의 풍속과 생활상에 대한 건문의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에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속시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군에서 우국심을 추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민속시보다 확장된 범주인 기속시에서도 우국심이 반영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국심이 반영된 민속시 <上元雜咏>은 한국 한시사에서 아주 특별한 작품이다. 각주 5 및 2절 참조.

망할테니

不祥幾與梟鷂同 올빼미와 하나로 묶어 상서롭지 못하다 하는가
 人不如鳥世多有 새만도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竊國者侯印如斗 나라를 훔친 자들의 신표가 가득 쌓여있네
 援琴欲彈烏夜啼 거문고를 끌어 당겨 오야제를 타려 하는데
 北望長安淚眼枯 북쪽으로 서울을 바라보니 눈물도 말랐어라

<祭烏>14)

<祭烏>는 16행의 樂府體 七言古詩인데 전반부라 할 수 있는 전 8행은 祭烏의 유래와 풍속을 읊은 전형적인 民俗詩이다. 그런데 후 8행에 가서는 세상이 모두 눈 멀고 귀 먹어버려 까마귀의 경고를 무시하기에 나라 걱정엔 눈물도 말랐다는 우국심이 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祭烏>에서 우국심은 문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14행에서 ‘竊國’이라는 표현이 비유 없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도 격렬한 우국심의 노출로 볼 수 있다. 이병기도 <祭烏>의 우국시로서의 면모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쫓긴 말고 보자는 것인데 세상에서 까마귀만 못한 음흉한 매국노가 있다는 비유를 이끌어낸다. 어수선한 서울 쪽만 생각해도 눈물마저 제대로 나지 않는다. 전설을 통해 나라를 염려한 것이다.¹⁵⁾

겉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세시풍속이지만, 실은 매국노 역적을 읊은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까마귀보다 못한 음흉한 매국노가 있다는 비유를 끌어내고 있다. 권세를 부리는 매국노를 생각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마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우국시이다.¹⁶⁾

이병기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13행의 ‘人不如鳥’란 표현이나, 15행의 ‘援琴欲彈烏夜啼’의 표현을 보더라도 우국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 烏夜啼는 악부의 제명으로 원래 南松의 臨川王 義慶이 지은 작품이다. 멀리 있

14) 黃玿, 『梅泉集』卷四, 上海本.

15) 이병기, 『매천시연구』, 보고사, 119쪽.

16) 이병기 외, 『역주 매천 황현시집 하』, 보고사, 238쪽.

는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애잔하게 읊은 곡이다. 이것이 훗날 <美人曲>처럼 계속해서 창작되었으며 相思曲이 되었다. 이백의 <烏夜啼>¹⁷⁾가 가장 유명하다.

상원 풍속을 읊은 瀟庭의 <上元俚曲> 25수에서도 祭烏를 가장 먼저 다루지만 ‘집집 마다 약밥 짓는 풍속은 여전하지만 까마귀엔 제사 지내지 않고 조상에게만 제사지내네¹⁸⁾’라며 까마귀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매천은 <上元雜詠>에서 스스로 까마귀가 되어 ‘아아’ 하고 다시 ‘깍깍’거리고자 한다. 이것이 매천 民俗詩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屠蘇酒至居人後
治蠶酒至居人前
縱不欲老無那老
把盞一笑成華顛
我亦少年誇耳聰
不施鞞挑常洞然
漸怪床下聞牛鬪
蒲柳脆薄驚秋先

傍枕勃窣郭索行
拂幘嚶嚶蒼蠅鳴
有時飛鳥名山趾
兩竅夢夢隔壁聽
始憐東隣黃髮叟
妄問妄對誠非情
何人搊出上元酒
飲者一一能效否

도소주는 남보다 나중에 마셔도
치룽주는 남보다 먼저 마셔야지
설령 늙지 않고자 하더라도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잔 잡고 한번 웃는 사이에 백발이 되었네
나 역시 젊어서는 귀 밝다고 자랑하였고
귀지를 후비지 않아도 늘 흰하게 트였었는데
점점 이상하게도 평상 아래에서는 소싸움 소리가 들리고
떨어지는 여린 깃버들을 보며 가을이 왔음에 남보다
먼저 놀라네

베개를 옆으로 밀쳐놓고 엉금엉금 게처럼 기어가고
앵앵 쉬파리 우는 소리가 들리니 머리싸개를 터네
어쩌다 명산 기슭을 까치가 날듯이 오를 때에는
벽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두 귀가 멍멍하네
비로소 동쪽 이웃 늙은이 가엽게 여기나니
망령되이 묻고 대답하는 것이 참으로 진정이 아니었구나
누가 상원주 처음으로 만들었는가
마시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 효험이 있던가 없던가

17) 李白, <烏夜啼>. 黃雲城邊烏欲棲 노을지는 성에 까마귀 깃들고자/ 歸飛啞啞枝上啼 날아와 까악 까악 가지 위에 울고 있네// 機中織錦秦川女 베틀 위에서 비단 짜는 진천의 아가씨는/ 碧紗如煙隔窓語 어슴푸레 벽사창 너머로 정든 목소리 들리는 듯// 停梭悵然憶遠人 창연히 베 짜던 북 멈추고 멀리 간 임 생각하고/ 獨宿孤房淚如雨 홀로 자는 외로운 방에서 비 오듯 눈물 흘러네

18) 김려, 『瀟庭遺藁』, 家家藥飯成風俗 不祭烏神祭祖祠.

人云我云徇俗好
聊且不辭盃到手
繞舍清溪玉淙淙
東風泛艷門前柳
春來不聞黃鳥聲
板汝杜康九十九

너도 나도 말하기를 풍속 따르는 것이 좋다하며
애오라지 또한 잔이 손에 이르는 것을 사양하지 않네
집을 에워싼 맑은 시내는 옥구슬 굴러가듯 졸졸 흐르고
봄바람에 나부끼는 문 앞 버들은 곱기도 하구나
봄이 와 피꼬리 소리 듣지 못하더라도
너와 함께 두강처럼 아흔아홉까지 살리라

〈治龔〉¹⁹⁾

〈治龔〉은 〈上元雜咏〉 10수 중 3번째 작품이다. 작품에 ‘俗呼耳明酒’, 즉 ‘세속에서는 이명주라고 부른다.’라는 附記가 있다. 역시 七古로서 22행의 장편이다. 1900년에 쓴 〈元朝二咏〉에도 같은 제목의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 달리 세속에서 이명주를 마시는 풍습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병을 물리치는 도소주보다 귀를 트여 주는 치롱주를 욕심내는 자신의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귀가 먹어감²⁰⁾을 늙어감에 비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늙고 병들어 감에 몸과 정신이 허약해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

7행의 ‘牛鬪’는 『世說新語』에 ‘중국 진나라 은중감의 아버지가 늙어 귓병을 앓고 있을 때에 평상 아래에서 개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소가 싸우는 것으로 알았다.’²¹⁾에 나오는 구절로서 늙고 병들어 몸과 정신이 허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8행의 ‘蒲柳’ 역시 그 典據가 『世說新語』에 보이는데 ‘갯버들의 자태는 가을이 오기 전에 잎이 떨어지나, 소나무와 잣나무의 자질은 서리를 지나 더욱 무성하다.’²²⁾라는 구절로 사람의 체질이 허약하여 나이보다 일찍 노쇠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매천이 실제 허약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1906년이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정신적 노쇠함의 비유로 보인다.

매천의 이러한 심회는 모두 우국심, 즉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기인

19) 黃玿, 『梅泉集』卷四, 上海本.

20) 귀가 먹어가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21) 劉義慶, 『世說新語』, 晉殷仲堪父師老患耳病 聞床下蟻行 謂之牛鬪.

22) 劉義慶, 『世說新語』, 蒲柳之姿 望秋之落 松柏之質 經霜爾茂.

하고 있으며 ‘너와 함께 두강처럼 아흔아홉까지 살리라.’에서 보여지듯 우국을 위한 실행적 결의를 다지고 있다.²³⁾ 특히 對가 되는 ‘봄이 와 찢꼬리 소리 듣지 못하더라도’라는 표현에서 보여지듯 강경한 반어법을 사용하여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찢꼬리 소리 듣기를 희망하는 정서가 시화된 작품이다.

絳場如縈百步平	줄다리기 마당 쟁반 같은 모습 백 보 넓이나 되는데
人人醉薰十步生	사람마다 술 냄새 십 보마다 풍기네
鼓聲未絕呼聲動	북소리 끝나기도 전에 환호소리 진동하니
從此擊鼓無鼓聲	이때부터는 북을 쳐도 북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네
千趾錯植項齊彎	모든 발을 엇바뀌 버티고 고개를 젓혔으나
仰面不見天月明	우러른 얼굴에 하늘의 밝은 달은 눈에 들지도 않네
黑塵霧勃出鼻底	검은 콧김 무성히도 코밑으로 내보내고
剗平凍地翻成坑	평평히 언 땅은 발로 비벼 구덩이를 만드네
當下若將決生死	당장에 사생결단이라도 내려는 듯하니
傍觀未暇論輸贏	구경꾼들 이겼다 졌다 논할 겨를도 없네
忽如崩山笑不休	산이 무너진 듯 쓰러지니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轍亂旗靡曳殘兵	수레자국 어지럽고 깃발 쓰러진 패잔병처럼 끌려가네
汗袍淒涼夜向闌	밤이 깊을수록 땀에 젖은 옷은 차가워지고
抹帕飄拂風怒鳴	거센 바람 불어와 머리띠를 휘날리네
村籊籊瀉薄薄醪	뭍은 막걸리 용수로 대충 걸러 내어
無揀勝負輪深航	승자와 패자 가리지 않고 술잔을 돌리네
生老太平今百年	태평세월에 태어나 한 백년 늙었더라면
此等俗戲皆人情	이런 풍속 놀이가 모두 인정스러운 것이련만
嗟哉汝曹眼力短	슬프도다! 그대들의 안목 짧음은
試向東海看饑鯨	동해의 탐욕스런 고래를 향해 시험할 것이지

<絳曳>²⁴⁾

23) 매천은 1,000 수가 넘는 한시 작품에서 長壽를 희망하는 표현은 사용한 적이 없다. 38세 때 아버지 회갑연을 맞아 쓴 축시에도 장수를 희망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첫 구에서 ‘萬壽山深首夏涼’(만수산 깊어 초여름에도 시원하고)이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만수를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한 매천이 스스로 장수하겠다는 표현은 강경한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다.

24) 黃玿, 『梅泉集』 卷四, 上海本.

〈絳曳〉는 대보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줄다리기를 시화한 작품이다. 환운 없이 庚운으로 일관하고 있다. 1행에서 16행까지는 민속놀이인 줄다리기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民俗詩라면 이렇게 16행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매천은 4행을 더하여 우국심을 표출하고 있다. 태평세월이라면 이러한 풍속놀이가 다 인정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1906년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줄다리기를 즐기는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嗟哉’라. 이 속에 이 시의 주제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이다.

매천은 9행의 ‘當下若將決生死’의 힘을 동해의 饑鯨²⁵⁾에게 쏟아야 하지 않느냐며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대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처럼 매천은 민속놀이인 줄다리기를 시화한 〈絳曳〉라는 작품에서도 4행을 덧붙여 우국심을 표출시키고 있다.

매천은 이 외에도 〈植風竿〉에서는 스스로를 風竿에 비유하여 우국심을 드러내었고, 〈燒田〉에서는 일본을 해충처럼 모두 태워버리기를 희망하였다. 〈候月〉에서는 ‘囑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꾸로 가는 달을 꾸짖었으며, 〈罷籬〉에서는 일본을 귀신에 비유하여 내쫓고자 하였다.

매천은 이와 같이 우리의 세시풍속을 사실적으로 탁월하게 묘사하면서도 우국심을 투영시키고 있다. 논의의 대상이었던 〈上元雜詠〉 이 외에도 이러한 경향은 매천의 다른 民俗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元宵二詠〉 역시 우국심이 문면에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처럼 매천 民俗詩의 커다란 특성 중의 하나는 세시풍속의 시화에 우국심을 투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천의 民俗詩가 무엇보다 뛰어난 점은 세시풍속과 우국심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정서가 잘 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5) 饑鯨은 주로 흉악한 적이나 교활한 무리 또는 강자에 비유되는데, 구한말 한시에서 고래는 대부분 탐욕스러운 일본을 상징한다.

4. 朝鮮詩의 完成

우리 세시풍속에서 정월대보름의 풍속이 가장 풍부하다. 그러므로 담정은 무려 25수로 상원 풍속을 노래하였고, 강박의 <上元紀俗> 14수, 강필신의 <上元紀俗> 14수, 이안중의 <上元謠> 8수, 조수삼의 <上元竹枝詞> 15수 등 상원 풍속을 시화한 작품이 많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매천과 달리 실제 상원 풍속을 보고 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원 풍속에 대한 지식이나, 과거에 직, 간접으로 경험하였던 풍속을 시화하고 있다.

매천의 <上元雜咏>을 살펴보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나 민속놀이에서 구례 지역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시화되지 않았다. 즉, 매천은 1906년 구례지역 상원의 여러 풍속을 체험하고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填街小兒無春寒
嚼冰如破蕪菁根
西舍東隣相望呼
刁聒合沓連村喧
唇焦舌倦呼不應
如有應者銀一錠
鷲地偶逢善忘人
我暑我暑如獲勝
黃冠老子絕纓笑
且住汝賣勤吾聽
天南六月火傘張
溝魚自死如探湯
千耦徂鋤汗滴土
豐年有慶歌稻梁
恣吾買喫幸吾飽
賤軀元非病暑腸

거리를 메운 아이들 봄추위도 없이
얼음 씹어 먹기를 무 뿌리 깨물 듯 하네
서쪽 집 동쪽 이웃 서로 바라보며 부르네
떠들썩한 소리 온 마을이 시끄럽네
입술이 타고 혀가 마르도록 불러도 대답없으니
만일 대답하는 자가 있다면 은전 한 닢을 주겠네
우연히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만나면 곧장
승리를 쟁취한 듯 “내 더위, 내 더위” 하네
황관 쓴 늙은이 갓끈 끊어질 듯 웃으며
그대 더위팔기 그만하고 부지런히 내 말 좀 들어보소
남쪽 지방이라 6월에 햇벌이 내리쬐면
도랑의 물고기도 끓는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죽는다네
밭 갈고 김매느라 땀방울을 흠에 떨구면서도
풍년들어 경사가 있길 바라며 가도량하네
내 실컷 사 먹고 배 부르기만을 바라는데
천한 몸은 원래 더위 먹어도 병들지 않는다네

<賣暑>²⁶⁾

<賣暑>는 16구의 악부체 칠언고시이다. 이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인 매천은 賣暑가 진행되는 현장의 중심에 있다. 먼저 8구를 보면 ‘我暑我暑’라는 표현은 조선식 표현이다. 보름날 아침에 “내 더위, 내 더위” 하는 조선말을 그대로 한자로 표현하고 있다. 의미상으로는 ‘我買暑’이지만 우리는 ‘我暑’라고만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가능한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하려 한 매천의 의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말을 그대로 한자로 표기하려 한 움직임은 朝鮮詩를 짓고자 하는 시인들에게 중요한 詩作 방법론 중의 하나였다.

또한 11구에 ‘天南’이라는 표현에서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시적 화자인 매천은 관념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남쪽 지방인 구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4구의 ‘歌稻粱’ 역시 전라북도 남원지방에서 불러졌던 노동요이다. 1906년 당시 매천이 거주하던 월곡은 남원문화권이었으니 이 작품은 현장성이 그대로 보여진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여기’²⁷⁾에 대한 고민은 ‘그때 거기’에 대한 고민의 반성으로 朝鮮詩 출발의 계기였다. 朝鮮詩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관념 세계의 탈피를 통한 현실의 묘사이다. 매천의 <賣暑>는 이러한 점에서 朝鮮詩의 특성을 잘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매천은 <上元雜咏>의 序言에서 밝힌대로 날씨가 추워서 이불로 몸을 감싸고 하루를 보내다가 세시의 감회를 떨칠 길이 없어서 마침내 향촌의 옛 풍속을 엮어 장가 열편을 얻은 것²⁸⁾이다. 여기서 언급한 향촌은 관념 속의 향촌이 아니라 매천이 거주하고 있는 월곡을 언급한 것이다. 이처럼 매천의 <上元雜咏>은 작가가 눈으로 본 풍경을 사실적으로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詩作 태도는 朝鮮風 한시의 중요한 구형 양식이었다. 이정선의 다음 언급은 朝鮮風 한시의 기틀을 마련한 朴齊家를 위시한 白塔詩派의

26) 黃玿, 『梅泉集』 卷四, 上海本.

27) 이정선, 앞의 책, 21쪽부터 22쪽.

28) 주 4 참조.

詩作態度이다.

박제가는 사물을 보는데 있어서 ‘細’를 중시하였다. 전고와 용사를 빌리지 않고 그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시야말로 신선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백담시인들이 추구하던 詩作 방법으로, 이들은 도회지 소시민들의 사소한 삶을 의미 있게 파악하는 데 비중을 두고 구체적인 현상에서 시적 대상을 찾아내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따라서 모든 사물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형상과 동태의 미세한 부분까지 짚진하게 묘사하고 자 하였다. 여기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관찰력과 실험정신을 필요로 하였다.²⁹⁾

물론 매천과 白塔詩派의 영향 관계는 학계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남겨진 기록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는다. 매천은 <讀國朝諸家>에서 14인의 조선 시인을 논의하는데 여기서 白塔詩派는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白塔詩派와 매천의 영향관계를 부정하는 단서가 될 수는 없다. 매천은 <讀國朝諸家>에서 항상 흠모하고 숭상하였던 茶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學詩에 남달랐던 매천이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의 시를 읽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영향관계를 떠나 매천은 民俗詩 창작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³⁰⁾에 치중하였다.

敗箕三尺粘糠厚	석자짜리 부서진 키에 겨가 두둑하니
小婢提向牛欄口	어린 계집이 들고 외양간으로 가네
一頭白飯一頭菜	한쪽에는 쌀밥이요 한쪽에는 나물이고

29) 이정선, 앞의 책, 76쪽.

30) 안대희(『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 출판, 1999, 50~53쪽.)는 이러한 사실적 묘사를 18세기 한국한시사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파악하였으나, 朝鮮詩의 특성으로까지는 논의를 확장하지 않았다. 18세기 한국 한시가 겪은 커다란 변혁은 그 이전의 한시와 커다란 차이를 가져왔으며, 그 여러 특성을 朝鮮風 내지 朝鮮詩라 명명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안대희는 “18세기 이전 작가의 낭만적 상상력에 의한 현실의 경물 묘사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림으로써 왜곡된 인상을 독자에게 주었던 상황에 비교하면 18세기의 시는 조선인의 인정과 감각에 부합하는 시를 창작하고 있다.”(같은 책, 51쪽부터 52쪽.)라며 18세기 한시의 큰 흐름을 정의하였다.

棉子一掬如粉糗 老牛舉首聞飯香 出舌舐鼻跑起忙 頑涎如膠注睛久 然疑四嗅未遽嘗 須臾張舌如帚掃 揮吻一磨推箕倒 小婢嚇嚇向牛笑 不是牛性無歹好 今歲定應豐無比 木綿雪積禾雲委 千畦菘葉賤於蒿 羹芼溢碗霜鱸美 明年此日炊豆飯 報賽牛靈應不晚	목화씨 한 움큼은 빵은 미숫가루 같네 늙은 소는 고개 들어 밥 냄새를 맡더니 혀를 내밀어 코를 핥으며 발로 땅 후비며 벌떡 일어나네 아교같은 침 흘리며 오래 주시하다가 의심하는가 하더니 사방으로 냄새 맡으며 급하게 맛보지 않네 조금 있다가 혀를 내밀어 쓸어내듯 다 삼키고 입술을 휘둘러 한 번에 훑어 키를 밀어 넘어뜨리네 어린 계집이 하하하 소를 보고 웃으니 이는 소의 성미 나빠 그런게 아니라네 올해는 말 그대로 비할바 없는 풍년이다니 목화는 눈처럼 쌓이고 벼는 구름같이 쌓이겠네 천 두둑의 배춧잎은 썩보다 싸고 나물국은 사발에 넘치며 가을 놓어도 맛이 있겠네 내년 이 날에도 콩밥을 지어서 소의 신령에 제사지냄을 응당 늦지 않으리라
---	--

〈飼牛〉³¹⁾

〈飼牛〉는 18구로 된 고체환운 칠언고시이다. 有, 陽, 皓, 紙가 4구씩 환운하고, 끝에 阮운의 2구가 붙은 구성이다.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소에게 밥과 나물을 차려주는 풍속³²⁾을 읊었다. 콩도 쥐야하지만 내년을 기약한다. 이 작품의 우수성은 描寫에 있다. ‘敗箕三尺’이라는 표현에서 구체적 수량을 의미하는 ‘三’이 쓰임으로 훨씬 현장적이다. 특히 ‘出舌舐鼻跑起忙’이라는 표현은 사우의 과정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다. 매천의 놀라운 관찰력과 세심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매천의 〈飼牛〉는 수량을 표시하는 一, 三, 千 등의 數詞가 많이 쓰여 현장감이 돋보이며, 어린 계집의 소 먹이는 과정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

31) 黃玿, 『梅泉集』 卷四, 上海本.

32) 우리 상원 풍속에는 상원날 아침에 소에게 밥과 나물과 콩을 주어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농사가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목화가 풍년이 들며, 콩을 먹으면 콩이 풍년이 든다고 믿었던 민간 풍속이 있다.

어 있는 수작이다. 아울러 ‘小婢嚇嚇向牛笑’라는 표현에서 보여지듯, ‘嚇嚇’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아이의 웃음소리가 실제 들리는 듯 현장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또한 飼牛의 과정이 12구 皓운에서 끝나고 환운하여 13구에서 16구까지 紙운을 사용하여 올해 풍년이 들기를 고대하는 讖言을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덕담을 나누는 조선적 사유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白竹長竿碎作炬	하얀 대죽 긴 장대 잘게 부숴 햇불 만들어
兒童噴火出門去	아이들 불 뿜으며 문을 나서네
放膽今夕爲火戲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 저녁엔 불놀이해도
家翁肫肫不噴汝	집안 어른들 조심하랄 뿐 꾸짖지 않네
溪南坡隴如納紙	누빈 장삼 같은 시내의 남쪽 언덕
先從低田斜邊渚	물가의 나지막한 밭에서부터 시작하네
草枯風細燃不休	마른 풀은 작은 바람에도 쉽 없이 타고르고
分外嫋嫋如着絮	홀어져 날리는 불뚝은 솜옷에 붙을 것만 같네
群兒眼薰類迷藏	아이들은 눈앞의 매운 연기에 눈 싸매고 숨바꼭질하는 듯
冒烟還走烟深處	연기를 무릅쓰고 도리어 연기 자욱한 곳으로 달려가네
隔溪呼喚不相聞	시내 건너에서 불러도 서로 들리지는 않지만
莫遣流星墮糞所	불씨가 두엄더미에 튀지 않게 하라는 것일 거라네
遺蝗種育尙可捕	황충(蝗蟲) 알은 자라나도 잡을 수 있지만
糞燒無終長我黍	두엄이 타 버리면 기장을 가꿀 수 없기 때문이니라

<燒田>³³⁾

<燒田>은 14구의 고체환운 칠언고시이다. 정월대보름 풍속 중 쥐불놀이 이를 시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묘사를 보면 매천이 쥐불놀이 현장 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눈에 보이는 쥐불놀이 광경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병기도 이 작품을 보고 ‘쥐불놀이를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썼다.’³⁴⁾라고 평하였다.

정월대보름 쥐불놀이는 상원 풍속에서 여러 작가들에 의하여 작품화 한

33) 黃玿, 『梅泉集』 卷四, 上海本.

34) 이병기, 『매천시 연구』, 127쪽.

소재이다. 그러나 매천의 <燒田>처럼 사실적으로 쥐불놀이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을 찾기가 어렵다. ‘白竹長竿’이라는 표현에서는 ‘白’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까지 사용하여 현장성을 살리고 있다. ‘如衲緇’이라는 표현 역시 남쪽 언덕의 형상을 수식하는 시각적 이미지의 절정이다. 전체적으로 쥐불놀이를 나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부터 쥐불놀이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성은 조선인만이 쓸 수 있는 조선의 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 하나의 典據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현장의 사실적 묘사만을 통하여 조선의 쥐불놀이를 시화하고 있다. 조선인만이 쓸 수 있는 朝鮮詩의 白眉라고 할 수 있다.

매천은 이처럼 구체적 묘사를 통한 현장성의 획득, 우리말의 한자식 표기, 수평적 시각에서의 민속 풍경의 묘사 등 개성 있는 民俗詩를 창작하였다. 또한 5언과 7언의 파괴를 통한 6언의 적절한 사용도 있었으니 <上元雜詠> 마지막 작품 <罷儺>는 다음과 같이 6언³⁵⁾으로 시작한다.

鼓淵淵鈺泔泔	북소리 등등등 징소리 광광
缶坎坎角嘈嘈	질장구 따당따당 피리소리 빠리빠리
旗獵獵舞躑躑	깃발은 펄럭펄럭 춤은 너울너울
	……省略……

<罷儺>36)

이러한 6언시는 한시 전통에서 生硬한 것으로 작품 수도 중국이나 조선을 통틀어 아주 極微하다.³⁷⁾ 조선에서는 18세기 혜환으로부터 6언시가

35) 이병기는 3언 6구로 보았으나(이병기, 매천시 연구, 130쪽부터 131쪽.) 6언 3구로 보는 것이 내용상, 구성상 더 타당하다고 본다.

36) 黃玹, 『梅泉集』 卷四, 上海本.

37) 한시는 5언과 7언이 주를 이루며, 4언이나 3언은 간혹 보인다. 6언의 경우 완전한 파괴로 중국에서도 6언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8세기 이전에는 李穡, 李崇寅, 鄭夢周 등의 작품에서 몇 편이 보일 뿐이다. 18세기에 6언시가 대거 창작되었다.

창작되었는데 전통 형식의 파괴, 朝鮮詩의 추구 등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안대회는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에서 혜환의 6언시 지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혜환은 기존 작가들이 6언시를 애호하지 않은 점, 창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한시의 규범성과 상투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6언시를 의도적으로 주목한 듯하다. 여기에는 그의 새로운 시의 창작을 위한 시도가, 실험정신이 돋보인다.³⁸⁾

이정선은 이러한 6언시 창작을 朝鮮風 한시의 중요한 특성으로 논의하였다.³⁹⁾ 매천은 이와 같이 <罷儺>에서 6언시⁴⁰⁾를 시험하여 개성 있는 작품을 남긴 것이다. <罷儺>는 귀신을 쫓는 민속 과정을 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비판정신에 기대어 개성 있는 시작태도를 지향한 매천은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⁴¹⁾ 19세기에 들어 많이 약화 돼버린⁴²⁾ 朝鮮詩의 특성을 수용한 秀作의 작품을 창작하였고, <上元雜咏>은 그러한 매천 朝鮮詩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5. 結論

매천 民俗詩의 대표작인 <上元雜咏>은 매천이 52세가 되던 상원에 창

38)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 출판, 1999, 241쪽.

39) 이정선, 앞의 책, 132쪽부터 141쪽.

40) 매천의 6언시는 <鶉江途中六言四首> 1제 4수와 <挽朴昆陽> 1제 1수 등 2제 5수가 있다.

41) 매천은 學詩를 중요시 하였고, 근체시에 능하였다. 사실주의에 입각한 朝鮮詩(형식면에서는 고시, 주제면에서는 사회시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를 많이 지었지만, 전통 한시 작법에 입각한 전범에 가까운 작품도 많다.

42) 18세기 말 일었던 문체반정의 영향과 김정희, 성대중 등의 영향으로 朝鮮詩의 확산은 주춤해진다.

작한 칠언고시 10수의 작품이다. 여기에서는 <上元雜咏>에 드러난 우국심과 朝鮮詩 성격의 수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民俗詩라는 장르의 특성상 우국심이 투영되기는 정서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18세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어진 술한 民俗詩들 중 우국심이 반영된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매천은 이러한 民俗詩에 우국심을 투영하여 民俗詩의 질적 승화를 이루었으며, 민속이라는 것 역시 나라의 존속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絳叟>라는 작품을 통하여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일본과 맞설 것을 희망하는 부분은 우국심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上元雜咏>의 또 다른 특성으로 민속시에 조선시를 수용함으로써 그 외형을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시의 수용은 <上元雜咏>이 현장의 사실적 묘사를 통한 미감을 획득함으로써 민속시의 질적 상승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上元雜咏>은 朝鮮詩의 중요한 특성인 현장성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조선인이기에 조선인의 人情를 노래하겠다는 詩作態度가 <上元雜咏>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항상 그러한’ 관념 세계가 아닌 ‘지금 여기’라는 분명한 시적 공간이 작품화되었기에, <上元雜咏>은 세밀한 사실적 묘사에서 오는 일지감과 동화감이 독자에게 주는 주요한 미감이다.

또한 <上元雜咏>은 매천의 시세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작품이다. 현실 세계 속에서 시제를 찾고자 했으며, 현실을 시화한 한시작가로서의 매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자료

- 김려, 『漣庭遺藁』.
劉義慶, 『世說新語』.
황현, 『梅泉集』.
_____, 『苟安室新稿』.

논저

- 金明淳, 『동방한문학 33집』, 「기속시의 성격과 조선후기의 양상」, 304쪽.
기태완, 『黃梅泉詩 研究』, 보고서, 1999, 108쪽.
_____, 「梅泉詩派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35쪽.
김영봉, 「매천 시의 배움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13집, 97쪽.
김정환, 「梅泉 黃玿의 『苟安室新稿』 研究」, 우리한문학회, 2005, 436쪽.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 출판, 1999, 50~53쪽.
이병기, 『매천시 연구』, 보고서, 1995, 207쪽.
이정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 출판부, 2002, 22쪽.
황수정, 「梅泉 黃玿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01쪽.
_____, 「梅泉詩에 나타난 歷史意識」, 『고시가문학』 제12집, 한국고시가
문학회, 2003, 302쪽.

투고일 : 2010년 6월 25일, 심사 : 2010년 7월 15일~ 8월 10일, 게재확정 : 8월 13일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aecheon's Folk Poem, <Sangwonjapyeong>

Kim, Jin-wook

The current study discussed patriotic spirit contained in <Sangwonjapyeong>, a representative folk poem of Maecheon, and acceptance of properties of Joseon poems. First of all, it is emotionally difficult that folk poems reflect patriotic spirit. It is also confirmed from the fact that many folk poems created mostly in the 18th century seldom display patriotic spirit.

Maecheon developed folk poems by reflecting this kind of patriotic spirit, and also showed the fact that folk customs should be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nation. In particular, a part in his work titled <Ryulye> in which he suggested facing against Japan with the spirit of desperation is the zenith of patriotic spirit.

As another characteristic of <Sangwonjapyeong>, the study discussed acquiring a sense of beauty through realistic description of the site. <Sangwonjapyeong> reflects the on-site concept, one of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Joseon poems. The author's attitude that he will tell about the emotion of Joseon people because he is one of them is clearly contained in <Sangwonjapyeong>. <Sangwonjapyeong> shows important feelings such as a sense of solidity and a sense of assimilation coming from detailed realistic description to readers because a clear poetic space, so called, 'now here', is described instead of an 'always such' conceptual world.

Key words : Sangwonjapyeong, Maecheon, folk poems, Joseon poems